

광주·전남 체육 꿈나무들, 전국소년체전 금빛 스타트

광주 에어로빅 이태민 2관왕·레슬링 김수형·체조 최원재 등 금메달
전남 사격 남자 U12 단체전 4연속 금·수영 문승유 대회 2관왕 수확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광주·전남 선수들의 메달 수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경남에서 개막한 전국소년체전에서 광주 선수단은 오후 5시 현재 47개(금 11개, 은 16개, 동 20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 첫 금메달은 에어로빅 경기에서 나왔다. 에어로빅 남자 U15 개인전에서 이태민(광주에어로빅합참전문스포츠클럽 3)은 18.400점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에어로빅 U12 3인조 경기에서도 국내운, 박지완, 장한솔이 18.300점으로 금메달을 합작했다.

레슬링에서는 김수형(광주체중3)이 남자 U15 자유형 80kg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고, 김태준(광주체중3)도 자유형 110kg 경기에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체조 남자 U12 경기에서는 최원재(J리듬&체조클럽)가 개인종합에서 72.425점을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바둑 여자 U12 경기에서 광주선발 김리원(각화초5), 박연정(조봉초5), 위서형(신창초5)이 서울바둑협회 이정화(서울동교초6), 정하운(서울장곡초5), 박영채(서울등현초5)를 상대로 결승에서 2-1로 이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양궁에서는 여자 U15 60m 강수정(광주체중3)이 343점으로 은메달을 따고, 김준서(광주체중2)도 남자 U15 50m 경기에서 335점을 쏴며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루리(광주체중3)는 근대3종 여자 U15 개인전에서 851점으로 은메달을, 단체전(3067점)과 계주(737점)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메달 3개를 더했다.

육상 사전 경기에서 2관왕이 나왔던 전남은 수영에서 두 명의 2관왕을 배출하는 등 메달 32개(금 11개, 은 8개, 동 13개)를 따며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사격에서는 박세훈(나주중2)이 남자 U15 공기권총 개인전에서 580점을 쏴며 대회 신기록을 기록,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가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에어로빅에서 금빛 소식을 전했다. 여자 U12 3인조 경기에서 금메달을 합작한 장한솔(왼쪽부터), 국내운, 박지완과 광주에 첫 금메달을 안겨준 남자 U15 개인전 금메달리스트 이태민.



태권도에서는 김은범(전남체중3)이 남자 U15 73-77kg에서 이도현(포항영신중3)을 상대로 2-0 승리하며 금메달 포획에 성공했다.

남자 U12 단체전에서 전남선발 박주원, 이진혁, 황준서도 4년 연속 금메달을 얻어냈다. 수영에서는 2관왕이 나왔다. 문승유(영암초6)는 여자 U12 평영 100m 경기

에서 1분 13초93으로 금메달을, 평영 50m 경기에서 34초66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정근민(사창초6)은 남자 U12 자유형 100m와 200m 경기에서 2관왕 타이틀을 얻었다.

태권도에서는 김은범(전남체중3)이 남자 U15 73-77kg에서 이도현(포항영신중3)을 상대로 2-0 승리하며 금메달 포획에 성공했다. /창원=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긴장 됐지만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나올거라 생각”



수영 남자U12 자유형 2관왕 정근민

자유형에 유리한 킥·발차기 강점

“열심히 노력한 만큼 실력이 나올거라고 생각해 자신있었습니다.”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남자U12 자유형 100m와 자유형 200m에서 2관왕을 차지한 정근민(사창초6)이 옛날 얼굴로 소감을 밝혔다.

정근민은 24일 열린 남자U12 자유형 100m(58초22)경기와 25일 200m(2분05초64)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호기심에 수영을 시작했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소년체전에 처음 도전했다. 당시 출전했던 제52회 전국소년체전 자유형

100m 경기에서 은메달을 땀던 정근민은 자유형이 가장 자신있는 종목이라고 밝혔다.

정근민은 “키(165cm)가 커서 킥(발차기)과 팔 걷기(팔 휘두르기)를 잘 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자유형에 강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큰 키로 수영장을 성큼성큼 걸어다닌다는 정근민은 “물을 휘젓는 느낌이 좋아 수영에 매력을 느꼈다”며 “수영은 좋아하지 않으면 오래 할 수 없는 종목인 것 같다. 수영이 너무 좋다”고 강조했다.

정근민은 “웬지 오늘도 메달을 딸 것 같았다”며 웃어보이면서 “긴장이 많이 됐다. 하지만 휘슬이 불리고 다이빙을 하기 직전까지 열심히 노력했던 시간을 떠올렸고 노력한만큼 결과가 나올거라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했다.

/창원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조코비치(오른쪽)가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ATP 투어 제네바오픈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후베르트 후르카치를 꺾고 ATP 투어 이상급 100회 우승을 이룬 후 소감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ATP 100승”... 조코비치, 제네바오픈 우승

20년 연속 우승 대기록

노바크 조코비치(6위·세르비아)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이상급 대회 단식 100회 우승 금자탑을 쌓았다.

조코비치는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ATP 투어 제네바오픈(총상금 59만6035유로)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후베르트 후르카치(31위·폴란드)를 상대로 3시간 6분 접전 끝에 2-1(5-7·7-6(7-2)·7-6(7-2))로 승리했다.

지난해 8월 파리 올림픽 금메달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우승을 차지한 조코비치는 통산 100번째 ATP 투어 이상급 대회 단식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9만675유로(약 1억4천만원)다.

ATP 투어 단식 이상급 대회 단식 100회 우승은 지미 코너스(109회·미국)와 로저 페더러(103회·스위스)에 이어 조코비치가 세 번째다.

조코비치는 파리 올림픽 금메달 이후 지난해 10월 상하이 마스터스, 올해 3월 마이애미오픈에서도 결승까지 올랐으나 준우승으로 대회를 마쳤다. 조코비치는 프로 선수들의 메이저 대회 출전이 허용된 1968년 이후 20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 시즌 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선수가 됐다.

2006년 7월 네덜란드오픈에서 첫 ATP 투어 우승을 달성한 그는 이후 해마다 우승 소식을 전해왔다. 첫 우승 상대였던 니콜라스 마수(칠레)가 이날 결승 상대였던 후르카치의 코치이기도 하다.

3세트 게임 스코어 2-4로 끌려가다 역전에 성공한 조코비치는 “100번째 우승을 위해 많이 노력했는데 오늘 이렇게 달성해 기쁘다”며 “사실 경기 내내 끌려다녔는데 어떻게 후르카치의 서비스를 브레이크했는지 모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코비치는 이를 전 38번째 생일을 보냈고, 조코비치보다 먼저 100회 우승을 달성한 코너스는 31살이던 1983년에 최초의 100회 우승 기록을 세웠다.

페더러는 37세 7개월이던 2019년 3월에 100번째 우승 고지를 밟았다.

조코비치는 곧바로 프랑스 파리로 이동, 25일 막을 올리는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오픈에 출전한다.

조코비치가 프랑스오픈을 제패하면 남녀를 통틀어 최초로 메이저 대회 단식 25회 우승 기록을 세운다. /연합뉴스

“계속 실력 쌓아 국대로 올림픽서 메달 따고 싶어요”



수영 여자 U12 평영 2관왕 문승유

“숫자로 기록되는 수영 매력 느껴”

“2관왕 수상하며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도 꼭 참았습니다.”

25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여자 U12 평영 종목에서 전남에 이어 1위를 차지한 문승유(영암초6)가 수줍게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문승유는 24일 평영 100m(1분13초93)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25일에는 평영 50m(34초66)에서 금빛 레이스를 펼치며 2관왕이 됐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언니를 따라 수영을 시작한 문승유는 레인을 오고갈 때마다 정확한 숫자로 기록이 남겨지는 수영경기를 보며 매력을 느꼈다.

본격적으로 소년체전을 준비했던 4월부터는 친구들과 노는 시간도 줄여가며 연습에 매진했다. 오후 2시 40분 학교 수업이 끝나면 오후 6시 30분까지 수영 연습을 했다.

지난해에 비해 키가 8cm가 커 기록도 100m는 전년 대비 5초, 50m는 2초가 단축되는 등 눈에 띄게 실력도 상승하고 있다.

문승유는 “수영을 세계 치라는 코치님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됐다”며 “마음속으로 긴장을 풀기 위해 잘 할 수 있다고 다독였다”고 경기 당시를 회상했다.

‘우리나라에서 수영 제일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는 문승유는 한현우, 박태환, 김우민 등을 보며 꿈을 키우고 있다.

문승유는 “계속 실력을 쌓아서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해 메달을 따고 싶다”고 웃어보였다.

/창원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권순우, ITF 안동국제테니스대회 단식 우승

정운성과 복식도 우승...2관왕

권순우(497위·국군체육부대)가 국제테니스연맹(ITF) 안동 국제남자대회(총상금 1만5333달러) 단식에서 우승했다.

권순우는 25일 경북 안동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신산희(494위·경산시청)를 2-0(6-3·6-1)으로 꺾었다.

올해 초 입대에 현재 일병 계급인 권순우는 2026년 7월 전역 예정이다.

권순우가 ITF 대회 단식에서 우승한 것은 2016년 이후 이번이 9년 만이다. 이후로는 ATP 투어에서 2회, 챌린저에서 세 번 단식 타이틀을 따냈다. 권순우는 전날 복식 결승에서도 정운성(국군체육부대)과 한 조로 우승, 대회 2관왕이 됐다.

함께 열린 ITF 안동 국제여자대회(총상금 3만 달러) 복식에서는 이은혜-백다연(이상 NH농협은행) 조가 우승했다. /연합뉴스

즐거움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교향악단 395회 정기연주회 '형제들'

일시 : 2025-05-30(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

GAC 공모전시

사모곡 비우면서 채우는... : 류현자 개인전

일시 : 2025-5-2(금) ~ 2025-6-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사모곡

비우면서 채우는...

류현자 개인전